

양육관련변인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행동간의 관계*

Relations between Parenting-Related Variables and Mother-Infant Interactive Behaviors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석사 양 하 영
교수 박혜원

Departmen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Master : Hayoung Yang

Professor : Hyewon Park Choi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결론 및 논의
참고 문헌

<Abstract>

Relations between mother-infant interactive behaviors and parenting-related variables were analyzed in a sample of 72 infants (35 boys and 37 girls, average age=31 mo.) and their mothers in Ulsan, Korea. Parents' views on children, parenting stress, fathers' participation in parenting and social support were measured using questionnaires and mother-infant interactive behaviors were observed using the 3-bags test. Among the parenting-related variables, parents' views on children were related significantly with mothers' emotional expressions & infant's participation with mothers. Social support was correlated with mother's behaviors, including positive rewards and emotional expressions. Mother-infant interactive behaviors were closely correlated with one another: Mothers' positive behaviors such as overall reactivity and cognitive stimulation were correlated positively with infants' positive behaviors, including sustained attention and positive affect. Future studies will provide us with greater insights into the mechanisms underlying the effects of these parenting-related variables 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주제어(Key Words) : 영아(infants), 어머니-영아 상호작용행동(mother-infant interactive behaviors), 양육관련변인(parenting-related variables), 3 bags 검사(3 bags test), 관찰(observation)

Corresponding Author : Hyewon Park Choi, Departmen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93, Daehak-ro, Nam gu, Ulsan, 680-749, Korea Tel: +82-52-259-2367 Fax:+82-52-259-2888 Email: hyewonc@ulsan.ac.kr

* 본 논문은 2008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I. 서론

아동의 발달에 환경과 양육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어머니 양육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정신분석이론, 대상관계 이론에서 사회정서발달과 관련하여 연구되었을 뿐 아니라 행동주의나 인지발달이론에서도 행동 및 인지 수행과 관련하여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Frankel & Bates, 1990; Rosengren, Behrend, & Perlmutter, 1993; Valdez-Menchaca & Whitehurst, 1992). Ainsworth, Blehar, Waters와 Wall(1978)은 어머니와 영아간의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및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전적인 경험 연구들을 통해 밝히고 애착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특성을 애정과 민감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Baumrind(1971)은 어머니의 양육특성을 유형화하여 민주적(authoritative) 양육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리더십), 성취 등 긍정적인 사회/인지 발달을 유도하는 반면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은 아동의 인내심부족, 두려움과 문제행동 등 부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특성 또한 많은 내, 외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의해 최근 어머니의 양육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다. 우선 어머니의 인지적, 심리적인 내적 특성으로 모 자신의 애착관계, 양육지식, 자녀관, 부모역할 만족감,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등이 양육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미숙, 2005; Coleman & Karraker, 1997). 그러나 이러한 내적 특성외에 다양한 외부 요인도 양육특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성의 취업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지지 등의 양육지원도 중요하며 그 외에 사회적 지원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혜진, 2003; 양진희, 2009; Luster & Okagaki, 1993).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내적 특성중 모자신의 애착관계와 같은 비교적 변화가 어려운 측면이 아닌 자녀관 및 양육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과 같은 외적 요인이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각 변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관이란 자녀를 보는 부모의 관점 및 견해로서 추상적 개념체계이며, 부모와 자녀관계를 보는 태도 또는 거기에 부여하는 의미, 자녀교육과 양육에 대한 기대와 신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갖게 됨으로부터 자녀교육, 자녀양육, 등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련의 가치체계이다(강소정, 김도희, 오경아, 이은숙, 정창희, 1991).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녀관이란 여성이 어머니로서 자녀에 대해 갖는 감정, 이

성, 의지, 육체 등의 특성 또는 질을 의미한다(김영희 외, 2000). 따라서 자녀관이란 부모가 됨으로서 가지게 되는 가치로 자녀에 대해 갖는 기대, 부여된 의미, 감정, 이성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자녀관이라는 것은 직관적인 여성의 기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문화적 영향과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학습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것으로(이영은, 강양희, 박혜선, 황은주, 문미영, 2003) 어머니와 영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정의적 특성 및 일련의 양육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선 부모로서 바람직한 자녀관을 갖는 것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하은옥, 2007). 왜냐하면 부모가 지니고 있는 신념 및 가치 체계는 부모의 양육특성과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의 지침으로서 자녀의 발달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Goodnow, 1988; McGillcudy-Delisi, 1985; Miller, 1988). 즉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신 또는 자녀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에 대한 개념과 관념 및 관점, 그리고 자녀에 대해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법은 부모의 양육 행동을 결정하는 선행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백혜리, 2005; 설영숙, 1977; 허은주, 1988). 최근 결혼 후에도 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녀관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김희순, 신영희, 오가실, 김태임, 심미경, 2005). 특히 세계 초유의 저출산 추세에서 반영되듯이 어머니들의 자녀관에 커다란 개인차가 나타나면서 자녀를 전혀 낳지 않으려는 기혼부부가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중요한 자녀관이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자들은 산업화 사회에서 여성은 직장과 가사의 이중부담, 전통적 양육방식의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양육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과 관련하여 양육스트레스라는 개념에 주목하게 되었다(Belsky, 1981). 양육스트레스란 가족생활이 발행하는 스트레스로, 가족체계가 직면하는 발달과정속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이며(고성혜, 1994),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정신적 부담감 및 심리적·신체적 부적응을 뜻한다. 그리고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어머니가 수행하는 부모역할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김기현, 강희경, 1997)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 때 자녀에 대해 긍정적 양육 행동이 나타난다는 최근의 연구(Belsky, 1981; Crinic, Greenberg, Rogozin, Robinson, & Basham, 1983; Goldberg & Morgan, 1991; Olweus, 1980)결과들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켰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인들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이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양육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표현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이혼률의 증가와 신빈곤층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김은경, 2003; 호유연, 2008), 취약가정의 어머니(김유심, 2008), 조손가정 부모(박미노, 2007; 박지은, 2009)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다. 연구결과들은 취약계층에서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는 취약가정에서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발생하며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가진 주양육자는 아동과의 친밀성 및 관계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Sandler, Miller, Short, & Wolchik, 1989).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전반적인 양육특성뿐 아니라 구체적인 어머니-영아 행동수준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한편, 양육스트레스는 주양육자와 아동이 처한 사회·경제·가족적 상황과 관련성이 높다. Abidin(1992)은 양육스트레스 모델에서 부모 및 아동의 특성 이외에 부모 건강, 배우자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 등의 변인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김정, 2005)고 밝혔는데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지지와 배우자의 협조 등과 관련한 연구들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세기 후반부터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화 되고 자녀출산의 급격히 감소하면서 모성 양육외에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양육환경 즉 아버지 역할, 사회적 지원 등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가사노동과 양육에 있어서의 남녀 역할인식의 변화로 인해 영아의 행동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과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강란해, 2001; 김수영, 허선자, 1996; 김희화, 2005; 이수미, 민하영, 2007; 이지희, 문혁준, 2005)의 중요성이 최근 강조되고 있다.

가족은 역동적 체계로서 각 가족원들은 다른 모든 가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원들 간의 관계는 상호작용적이다. 가족체계 내에서 부부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양육과 가사분담은 어머니의 책임이었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시작되고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사회진출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과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등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역할은 전통적으로는 도구적 역할로 상징되었으나 현대에서는 보다 양성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다 많은 표현적 역할이 기대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 부응하여 1990년대 들어서는 효과적인 아

버지의 역할 또는 강력한 아버지 역할의 의미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이혜경, 2007). 이에 따라 아버지가 영아의 행동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국내외 연구에서 높아졌다.

아버지 양육 참여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른 관점에서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이 증명되었고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할 때 유아 발달의 여러 측면이 더 잘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또한 Belsky(1984)에 의하면, 자녀가 1, 3, 9개월 일 때,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시간은 부부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이정순(2002)은 손이 많이 가는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의 아버지 양육참여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주는 것으로 드러나 아동의 발달을 넘어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남편의 도구적 지지에 해당하는 자녀양육 참여뿐만 아니라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정서적 지지로서 기능을 하여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변인인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연구대상이 유아에서 청소년까지 최근 다양하게 연구되어있지만 영아기를 대상으로 또한 영아의 행동차원에서 분석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의 자아성취 욕구가 높아지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출산 후 사회에 복귀하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외에도 타양육자 또는 기관을 통한 양육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육에 있어서 사회적 지원 역시 현대 사회의 가족체계 및 양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영, 신은주와 나중혜(1994)는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의 증가와 더불어 자녀양육의 문제가 가정의 책임한계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Thoits(1982)는 사회적 지원을 애정, 자존심, 승인, 소속, 정체감, 안정감 등과 같은 개인의 기본적인 사회적 요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족되는 정도라고 하였고, Kahn과 Antonucci(1981)는 애정, 신뢰, 원조와 같은 핵심적인 요소들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대인간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이재림, 옥선화, 2001).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 개념을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House(1981)는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지지와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비취진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게 하는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한편 고선주(1996)는 실제적인 자녀양육에서의 도구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도구적 지원을 서비스 지원과 경제적 지원으로 구분하였다(전춘애, 박성연, 1996).

즉, 사회적 지원이란 친척, 이웃, 친구 등 배우자 이외의 타인들에 의해 제공되는 지원을 일컫는 말로 정보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가정사건을 공유하기도 하고, 양육에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개인 내적 감정을 지원해주는 등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긍정적인 협조를 보이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첫 자녀 출생 후 부모가 된 젊은 부부들은 자신들의 부모와의 접촉을 더 많이 하며 또 어린 자녀를 가진 다른 부부와의 접촉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Belsky & Rovine, 1984), 다른 사람과의 관계망이 부부의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이숙현(1990)은 가사일과 자녀 양육을 친정 부모나 시부모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산층 취업모들이 가사일과 자녀 양육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비취업모에 비해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고선주(1996) 역시 취업모인 경우 가족에 주어지는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부모로서의 긴장감을 적게 느껴 결혼 적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양육에 있어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의 양육특성을 상호작용적 행동차원에서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NICHDD, 1999; Vandell, 1979). 어머니-자녀의 상호작용행동 특성을 분석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발달간의 관계 연구(김금주, 1999; 박성연, 2005), 양육특성과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관련한 연구(박성연, 2005; 박성연, 고은주, 2003)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 특성 즉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특성, 자극, 촉진, 긍정적 보상 등과 같은 긍정적 행동은 영아의 안정애착 발달이나 좋은 인지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많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 양육과 관련된 개인심리적 변인이나 맥락적 변인을 포함하여 어머니 양육특성이 영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에 대한 인지심리적 요소, 즉 자녀에 대한 가치관, 양육스트레스, 남편의 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원과 같은 어머니 양육을 둘러싼 맥락적 요소 등과 어머니 양육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연구를 통하여 행동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아나 아동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언어의 제한이 있는 영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관찰연구를 통하여 실제 어머니-영아 상호작용행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언어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영아기의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한

관찰방법은 놀이 자체가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관찰상황이 원만하며 유용한 연구방법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놀이상황은 평가자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관찰의 타당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영혜, 김현희, 2002).

끝으로 연구 대상은 영아의 상호작용행동을 명확히 관찰할 수 있는 1-3세로 하였으며 이 시기는 매우 성장이 빠르므로 월령에 따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행동의 측면에는 긍정적 기분, 부정적 기분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는 성에 따른 차이가 있다(김문신, 2003).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영아의 월령과 성에 따라 양육관련변인, 어머니-영아 상호작용행동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양육변인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행동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만 1세~3세 영아 72명과 그들의 어머니 72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어린이집 5곳을 선정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78쌍의 영아와 어머니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으나, 연구 과정에서 무응답이나 불성실 응답자 6쌍을 제외한 총 72쌍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영아의 월령은 상호작용행동에서 나타나는 정서발달 측면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정서에서 분화된 정서를 경험하는 2세 전후를 구분하되 연령집단의 분포를 고려하여 30개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월령 분포는 30개월 이하는 35명(48.6%)이고 31개월 이상은 37명(51.4%)으로 평균 월령은 31개월 이었다. 성별 구성은 남아 35명(48.6%), 여아 37명(51.4%)이었다.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연령은 30세 이하가 9명(12.5%), 31세 이상 35세 이하가 47명(65.3%)으로 가장 많았다. 36세 이상은 15명(20.8%)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하는 27명(38%), 전문대졸은 4명(5.6%), 대학졸이 36명(50%)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이상은 1명(1.4%)이었다. 어머니 직업을 살펴보면, 행상이 8명(11.3%), 서비스직 종사자가 2명(2.8%), 하위 전문직 종사자가 59명(81.9%)로 가장 많았고 고위 전문직 종사자는 1명(1.4%)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양육관련변인

(1) 자녀관

어머니의 자녀관을 측정하기 위해 이삼식 외(2005)의 연구에서 쓰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삼식 외(2005) 연구에 사용된 8문항을 본 연구에 적절하지 않은 1문항을 제외시켜서 7문항으로 수정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7점~35점이다. 자녀관은 부모가 되고나서 자녀에 대해 갖는 이상, 기대, 감정, 태도 등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 및 이상이 높고 부모로서의 의지적 특성을 갖게 된다. 자녀관 척도 7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0이었다.

(2)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를 기초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원래 총 34문항으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2문항,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2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 중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제외한 부모됨과 올바른 역할수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을 반영하여 상호작용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2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영역에서 문항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2문항은 제외하고 10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인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 10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6이었다.

(3) 부양육참여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홍성례와 유영주(1997)의 '남편의 가족역할수행 척도'에서 부모역할에 관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배우자역할, 부모역할, 친족역할, 가사분담자역할, 가계경제관리역할, 부양자역할, 대외적 역할 등 총 33문항의 7요인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다. 5점 Likert 척도인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양육참여 4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1이었다.

(4) 사회적 지원

주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사회적 지원의 유형을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 사교적 지원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총 12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2점~6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원 12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4였다.

2) 어머니-영아 상호작용행동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의 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NICHD(1999)에서 개발한 '3-Bags 실험과정'을 사용하였다. NICHD(1999)는 영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상황연출을 위해 영아에게 흥미를 끌 수 있으며 다양한 활동 유형을 이끌 수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진행되는 Vandell(1979)의 실험과정을 수정, 보완한 The 3-Bags 실험과정을 연구에 사용하였고 6개월, 15개월, 24개월, 36개월 된 3세 이하의 영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이는 구조화된 놀이상황으로 각 참가자들은 알아보고자 하는 행동을 촉발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참가자가 그 행동을 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찰자는 숨겨진 카메라나 일방경을 통해 관찰한다. 구조화된 관찰은 자연환경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을 연구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방법임과 동시에 또한 표집에 있는 모든 참가자들이 동일한 유발 자극에 노출되고 목표행동을 수행할 기회를 동등하게 갖는 것(송길연, 김수정, 이지현, 양동규, 2006)을 보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3-Bags 실험도구'는 <표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3개의 형질 가방에 유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놀잇감을 넣어 준비하였다. 관찰자는 어머니에게 순서가 적힌 형질 가방에 든 3가지 놀잇감을 15분간 자녀가 가지고 놀도록 상호작용하라고 알려주었다. 어머니-영아간 상호작용행동은 녹화하여 이후 분석하였다. 관찰 비디오 분석 시 주의할 점은 행동의 양과 질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이다. '3-Bags 실험과정'에서의 어머니-영아 상호작용행동은 어머니 평정 척도 8가지(전반적 반응성, 강제성, 인지적 자극, 긍정적 보

<표 1> The 3-bags 실험도구

| 가방 | 가방 1 | 가방 2 | 가방 3 |
|------------------|--------|---|--|
| | 그림책 | 부엌놀이 세트 | 인형집 세트 |
| 각 가방에 담긴 장난감 구성물 | 낮잠자는 집 | 조립식 싱크대 바구니, 냄비와 뚜껑, 그릇, 접시, 국자, 스푼, 포크, 칼, 음식모형(반으로 자를 수 있는 것) 등 | 인형집, 각종 가구들(침대, 의자, 벽난로, 번기, 식탁 등), 인형 등 |

〈표 2〉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N = 72)

| 하위 척도 | 18-30개월 (n = 35) | | | 31개월-41개월 (n = 37) | | | 총계 | | | |
|------------|---------------------|-----------------|-----------------|-----------------------|-----------------|-----------------|-----------------|-----------------|-----------------|-----------------|
| | 남 n = 14 | 여 n = 21 | 계 n = 35 | 남 n = 21 | 여 n = 16 | 계 n = 37 | 남 n = 35 | 여 n = 37 | 총계 n = 72 | |
| 양육관련변인 | 자녀관 | 24.71 (3.20) | 26.14 (3.99) | 25.57 (3.67) | 24.57 (3.20) | 24.56 (3.46) | 24.57 (3.33) | 24.63 (3.48) | 25.46 (3.80) | 25.06 (3.65) |
| | 양육스트레스 | 26.79 (6.82) | 25.95 (6.94) | 26.29 (6.92) | 27.81 (6.51) | 30.56 (5.27) | 29.00 (5.97) | 27.40 (6.55) | 27.95 (6.61) | 27.68 (6.54) |
| | 부양육참여 | 14.36 (3.73) | 14.52 (3.66) | 14.46 (3.69) | 13.48 (3.40) | 14.63 (2.83) | 13.98 (3.12) | 13.83 (3.51) | 14.57 (3.28) | 14.21 (3.39) |
| | 사회적 지원 | 46.50 (9.36) | 50.33 (6.74) | 48.80 (8.05) | 48.71 (5.59) | 48.25 (5.73) | 48.51 (5.66) | 47.83 (7.29) | 49.43 (6.33) | 48.65 (6.81) |
| 어머니 상호작용행동 | 전반적 반응성 | 2.50 (0.65) | 2.52 (0.60) | 2.51 (0.62) | 2.67 (0.80) | 3.06 (0.44) | 2.84 (0.70) | 2.49 (0.78) | 2.27 (0.77) | 2.68 (0.67) |
| | 강제성 | 2.07 (1.14) | 2.10 (1.00) | 2.09 (1.07) | 2.00 (1.18) | 1.25 (0.45) | 1.68 (0.91) | 1.37 (0.73) | 1.19 (0.40) | 1.88 (1.03) |
| | 인지적 자극 | 2.36 (0.63) | 2.19 (0.60) | 2.26 (0.61) | 2.43 (0.75) | 2.56 (0.51) | 2.49 (0.63) | 2.86 (0.60) | 2.70 (0.46) | 2.38 (0.64) |
| | 긍정적 보상 | 3.43 (0.76) | 3.29 (0.64) | 3.35 (0.7) | 3.29 (0.64) | 3.44 (0.51) | 3.35 (0.59) | 3.43 (0.65) | 3.38 (0.49) | 3.34 (0.63) |
| | 부정적 보상 | 1.07 (0.27) | 1.00 (0) | 1.03 (0.13) | 1.04 (0.22) | 1.00 (0) | 1.02 (0.15) | 3.17 (0.75) | 3.19 (0.70) | 1.03 (0.17) |
| | 정서의 단조로움 | 1.29 (0.47) | 1.33 (0.53) | 1.31 (0.5) | 1.48 (0.68) | 1.44 (0.63) | 1.46 (0.66) | 2.60 (0.74) | 2.76 (0.60) | 1.39 (0.59) |
| | 긍정적 기분 | 2.29 (0.83) | 2.29 (0.72) | 2.29 (0.77) | 2.62 (0.74) | 2.25 (0.86) | 2.46 (0.80) | 2.03 (1.15) | 1.73 (0.90) | 2.38 (0.78) |
| | 부정적 기분 | 1.64 (1.01) | 1.24 (0.44) | 1.4 (0.62) | 1.19 (0.40) | 1.13 (0.34) | 1.16 (0.03) | 2.40 (0.69) | 2.35 (0.59) | 1.28 (0.59) |
| | 활동수준 | 2.79 (0.58) | 2.67 (0.48) | 2.72 (0.50) | 2.90 (0.62) | 2.75 (0.45) | 2.84 (0.54) | 3.34 (0.68) | 3.35 (0.59) | 2.78 (0.54) |
| | 지속적 주의 | 3.43 (0.65) | 3.38 (0.50) | 3.4 (0.57) | 3.43 (0.68) | 3.38 (0.50) | 3.41 (0.62) | 1.06 (0.24) | 1.00 (0.00) | 3.40 (0.57) |
| 모와참여 | 3.07 (0.83) | 3.10 (0.83) | 3.09 (0.83) | 3.24 (0.70) | 3.31 (0.48) | 3.27 (0.62) | 1.40 (0.60) | 1.38 (0.59) | 3.18 (0.72) | |

상, 부정적 보상, 정서적 단조로움, 고통에 대한 민감성, 분리)와 영아 평정 척도 5가지 (긍정적 기분, 부정적 기분, 활동수준, 지속적 주의, 어머니와의 참여)측면으로 평정된다. 하지만 본 실험은 구조화된 놀이상황으로 외부자극이 차단되어 있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감정 및 행동을 나타내는 아동이 없었고 그로 인해 아동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모의 민감성을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와 아동의 분리 행동 역시 구조화된 놀이상황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민감성' 척도와 '분리' 척도를 제외한 6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강제성, 부정적 보상, 정서적 단조로움의 세 변인은 부정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4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어머니 양육특성척도 총점을 산출시에는 세 변인을 역코딩해서 각 변인들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하위 변인들의 문항은 각각 4점 Likert 척도로 1-4점으로 채

점되어 어머니 행동평정 척도 점수의 범위는 6점~24점이고, 영아 행동평정 척도의 경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5~20점이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9년 4월 중순부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영아 78쌍을 대상으로 울산지역에 소재한 5곳의 어린이 집에서 실시하였다. 검사의 정확성과 적절한 지도 감독을 위해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4명씩 각 어린이집으로 내원하여 검사에 참여하였다.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양육관련변인(자녀관, 양육스트레스, 부양육참여, 사회적 지원) 질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여 기입하도록 하고 회수하였다. 어머니 관련 질문지 완성에 소요된 시간은 30~40분이었다.

연구 보조자 훈련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관찰자료 수집자 훈련이 이루어졌고 2009년 4월~2009년 6월까지 3개월 가량 어머니-영아 상호작용행동 녹화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3〉 월령과 성별에 따른 어머니 상호작용행동 변량분석

| 변인 | 변량원 | SS | df | MS | F |
|------------|-------|---------|----|-------|--------|
| 전반적 반응성 | 월령 | 2.171 | 1 | 2.171 | 5.209* |
| | 성별 | 0.768 | 1 | 0.768 | 1.844 |
| | 월령*성별 | 0.604 | 1 | 0.604 | 1.449 |
| | 오차 | 28.342 | 68 | 0.417 | |
| | 합계 | 549.000 | 72 | | |

* $p < .05$

〈표 4〉 월령과 성별에 따른 영아 상호작용행동 변량분석

| 변인 | 변량원 | SS | df | MS | F |
|-----------|-------|---------|----|-------|--------|
| 부정적 기분 | 월령 | 1.395 | 1 | 1.395 | 4.311* |
| | 성별 | 0.965 | 1 | 0.965 | 2.981 |
| | 월령*성별 | 0.502 | 1 | 0.502 | 1.552 |
| | 오차 | 41.095 | 68 | 0.604 | |
| | 합계 | 449.000 | 72 | | |

* $p < .05$

녹화된 내용은 아동학 전공 박사과정 1인과 석사과정 2인이 척도에 따라 채점하여 일치도를 확인 후 분석하였다. 채점자 간 신뢰도는 .86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들의 통계적 분석은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연구문제 1번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 연구문제 2번에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표 2〉에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를 제시하였다. 자녀관과 양육스트레스 등 내적 양육관련변인의 측정결과 자녀관은 28점 만점에 25.1($SD = 3.7$)로 매우 높았다. 양육스트레스는 50점 만점에 27.7($SD = 6.5$)이었으며 부양육참여는 35점 만점에 14.2($SD = 3.4$)로 낮았다. 사회적 지원은 60점 만점에 48.7(6.8)이었다.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행동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관찰·평정한 결과, 어머니 상호작용행동 총점의 점수범위는 11~24점이었는데 평균은 19.11점($SD = 2.64$)으로 높은 편이었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4점 Likert에서 전반적 반응성 평균은 2.68점($SD = 0.67$)이었고, 인지적 자극은 2.38점($SD = 0.64$)으로 ‘약간 그렇다’에서 ‘보통 그렇다’ 사이로 채점되었다. 긍정적 보상은 3.34점($SD = 0.63$)으로 ‘보통 그렇

다’에서 ‘매우 그렇다’ 사이로 나타났다. 강제성 평균은 1.88점($SD = 1.03$), 부정적 보상 평균은 1.03점($SD = 0.63$), 정서의 단조로움은 1.39점($SD = 0.59$)로 나타났다.

영아 상호작용행동 총점의 점수범위는 10~19점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15.46점($SD = 1.99$)이었다. 5가지 각 하위요인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4점 Likert로 채점이 되었고 긍정적 기분은 평균 2.38점($SD = 0.78$), 활동수준은 2.78점($SD = 0.54$), 지속적 주의는 3.40점($SD = 0.57$), 모와 참여는 3.18점($SD = 0.72$)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기분은 1.28점($SD = 0.59$)으로 1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기분표현이 낮은 것이다.

2. 월령과 성별에 따른 양육관련변인, 어머니-영아 상호작용행동

월령과 성별에 따른 양육관련변인 변량분석결과 월령이나 성에 따른 자녀관, 양육스트레스, 부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원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월령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추세였다($F = 3.33, p = .10$). 〈표 3〉에는 월령과 성별에 따른 어머니 상호작용행동을 분석한 결과 성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전반적 반응성에서 월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나이든 영아에 대한 반응성이 더 높았다($F = 5.21, p < .05$). 어머니 상호작용행동의 다른 하위 척도에 대해서는 월령과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에 월령과 성별에 따른 영아의 상호작용행동은 부정적 기분에서만 월령차이가 나타나 어린 영아의 경우가 더 높았다($F = 4.311, p < .05$).

3. 양육관련변인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행동간의 관계

〈표 3, 4〉에서 볼 때 월령집단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소수이며 또한 상관분석을 월령집단별 나누어 실시하기에는 아동수가 적어 월령집단을 합쳐 전체적인 상관을 분석하였다. 〈표 5〉에 양육관련변인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행동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양육관련 변인들은 서로 상관이 있어 자녀관은 양육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r = -.25, p < .05$)을 그리고 부양육참여와는 정적 상관($r = .26, p < .05$)을 보였다.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는 부양육참여와는 강한 부적 상관($r = -.51, p < .01$)을 그리고 사회적 지원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r = -.32, p < .01$)을 보였다. 부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간에는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r = .39, p < .01$)이 있었다.

어머니 양육관련변인과 어머니 상호작용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강제성은 자녀관($r = .23,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긍정적 보상 행동은 사회적 지원($r = .38,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정서의

〈표 5〉 양육관련변인, 어머니-영아 상호작용행동 간의 상관관계

(N = 72)

| | 자녀관 | 양육스트레스 | 부양육참여 | 사회적 지원 | 전반적 반응성 | 강제성 | 인지적 자극 | 긍정적 보상 | 정서의 단조로움 | 부정적 보상 | 긍정적 기분 | 부정적 기분 | 활동수준 | 지속적 주의 | |
|------------|---------|--------|--------|--------|---------|--------|--------|--------|----------|--------|--------|--------|--------|--------|-------|
| 양육관련변인 | 양육스트레스 | -.25* | | | | | | | | | | | | | |
| | 부양육참여 | .26* | -.51** | | | | | | | | | | | | |
| | 사회적 지원 | .22 | -.32** | .39** | | | | | | | | | | | |
| 어머니 상호작용행동 | 전반적 반응성 | -.14 | -.02 | -.09 | .17 | | | | | | | | | | |
| | 강제성 | .23* | .01 | .03 | -.17 | -.65** | | | | | | | | | |
| | 인지적 자극 | .03 | -.08 | .05 | .21 | .62** | -.33** | | | | | | | | |
| | 긍정적 보상 | -.01 | -.11 | -.04 | .38** | .53** | -.34** | .58** | | | | | | | |
| | 부정적 보상 | -.17 | .14 | -.01 | -.23 | -.30* | .27* | -.37* | -.36** | | | | | | |
| 영아 상호작용행동 | 정서단조로움 | -.24* | .13 | -.26* | -.31** | -.11 | -.13 | -.35** | -.59** | .32** | | | | | |
| | 긍정적 기분 | -.08 | .02 | .01 | .12 | -.06 | -.13 | -.01 | .13 | .03 | .08 | | | | |
| | 부정적 기분 | .03 | .01 | .07 | -.11 | -.31** | .24* | -.13 | -.11 | .50** | .01 | -.08 | | | |
| | 활동수준 | .01 | .04 | .01 | .14 | .19 | -.20 | -.08 | -.06 | .39** | .23 | .14 | .02 | | |
| | 지속적 주의 | .06 | -.19 | .09 | .15 | .30** | -.25* | .20 | .27* | -.27* | -.14 | .23 | -.34** | .20 | |
| | 모와 참여 | .28* | -.04 | .01 | .19 | .21 | -.20 | .16 | .17 | -.28* | -.07 | .13 | -.49** | .25* | .51** |

* $p < .05$ ** $p < .01$

단조로움은 자녀관($r = -.24, p < .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부양육참여($r = -.26, p < .05$)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지원($r = -.31, p < .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의 자녀관이 높을수록 강제성 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긍정적 보상행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관이 높고, 부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어머니 정서의 단조로움이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관련변인과 영아의 상호작용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영아의 모와 참여수준은 양육관련변인 중 자녀관($r = .28, p < .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녀관의 가치가 높을수록 영아는 모와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양육특성과 영아 행동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어머니 상호작용행동과 영아 상호작용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전반적 반응성은 영아의 부정적 기분($r = -.31, p < .01$), 지속적 주의($r = .30, p < .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전반적 반응성이 높을수록 영아의 부정적 기분은 낮게 나타나고, 놀이집중은 높아졌다.

어머니의 강제성은 영아 부정적 기분($r = .24, p < .05$), 지속적 주의($r = -.25, p < .05$)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강제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기분은 높게 나타나고 지속적 놀이집중은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긍정적 보상은 영아의 지속적 주의($r = .27, p < .05$)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긍정적 보상이 많을수록 집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머니의 부정적 보상은 영아의 부정적 기분($r = .05, p < .01$), 활동수준($r = .39, p < .01$), 지속적 주의($r = -.27, p < .05$), 모와의 참여($r = -.28, p < .05$)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놀이 중 어머니가 부정적 보상을 많이 보일수록 영아의 부정적 기분은 많이 나타나고 활동수준은 높았으며 지속적인 주의 및 참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한국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대가족 제도가 사라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

발하여 전업모는 50%이하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세계초유의 저출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인데 여성들이 출산을 두려워하는 데는 양육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외에도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할 경우도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저출산의 추세가 직장여성뿐 아니라 전업모에게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특성을 구체적인 행동차원에서 분석하고 이것이 아동의 행동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양육특성과 관계가 있는 내외 변인(자녀관, 양육스트레스, 부양육참여, 사회적 지원)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특성과 환경을 명확히 하고 어머니의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자녀관은 28점 만점에 25.1($SD = 3.7$)로 매우 높았다. 이는 출산과 관련하여 미래의 희망자녀수 등은 2.7명이상(박혜원, 2010)으로 2명을 훌쩍 넘는데도 실제 출산률은 2009년 현재 1.15로 OECD국가중 최저인 현상과도 유사하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출산이나 자녀관은 매우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50점 만점에 27.7로 중간이상이며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영육참여는 35점 만점에 14.2($SD = 3.4$)로 매우 낮았다. 따라서 실제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이에 따라 자녀출산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3〉에서 변량분석결과 월령이나 성에 따른 자녀관, 양육스트레스, 부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원 등 양육관련변인의 차이는 없는 편으로 오직 월령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양육의 의무가 보다 모에 집중되는 영아기 초기보다도 영아기 후기나 유아초기에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은 교육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어머니의 양육어려움은 자녀의 자율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양육의 문제가 의식주의 해결을 넘어 교육 등이 관여될 때 발생한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보여준 양육적 상호작용행동 총점은 높은 편이며 대체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특성은 낮았다. 〈표 3〉에는 월령과 성별에 따른 어머니 상호작용행동을 분석한 결과 성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전반적 반응성에서 월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나이든 영아에 대한 반응성이 더 높았다. 그리고 강제성은 유의하지는 않으나 월령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아동의 발달에 따른 결과로 영아의 언어사용과 이동 능력 등 자율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송길연 외, 2006). 영아가 놀이중 어머니에게 보인 상호작용행동도 본 연구대상의 경우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표 4〉에서 월령과 성별에 따

른 영아의 상호작용행동을 분석해 보았을 때 부정적 기분에 서만 월령차이가 나타나 어린 영아가 나이든 영아보다 더 높았다. 이는 영아기 후반 정서조절이 가능해 지면서(송길연 외, 2006) 울음 등 부정적 기분의 표출이 줄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에 양육관련변인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양육참여와는 강한 부적 상관($r = -.51$)을 그리고 사회적 지원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r = -.32$)을 보였다. 그런데 아버지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간에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r = .39$)이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비교적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어머니의 취업 등으로 어머니와의 사회적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 지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양육관련변인과 어머니-영아의 상호작용행동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육관련변인중 자녀관과 어머니 상호작용행동중 강제성간에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적 단조로움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 어머니의 경우 자녀관이 높을수록 즉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강제성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정서적인 표현으로도 나타내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강제성은 자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길연 외, 2006). 본 연구에서도 〈표 5〉와 제시된 것과 같이 어머니의 강제성은 아동의 부정적 기분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무엇보다도 지속적 주의능력등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녀 사랑이 자칫 통제적인 양육특성으로 나타나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쉬운 점을 적극 부모교육 등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양육관련변인인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긍정적 보상 행동간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주변에 사회적 지원 요소가 많을수록 어머니는 일상생활에 있어 지지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긍정적인 기분, 행동 등으로 표출이 되어 영아의 행동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반응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관은 부모가 되고나서 자녀에 대해 갖는 이상, 기대, 감정, 태도 등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 및 이상이 높고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에 있어서 의지가 높은 특성을 갖게 된다. 이처럼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고 의지적인 특성이 부모 중심의 강제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서의 단조로움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변인은 어머니의 정서의 단조로움에 대해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사회적 지원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일수록 정서의 단조로움이 낮게 나타나 생동적인 정서 표현을 나타내

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적일수록 어머니는 거부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특성을 보이지 않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유아의 양육특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는 원명선(2006)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양육관련변인과 영아의 상호작용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자녀관과 영아의 상호작용행동중 모와 참여간에 정적 상관의 유의하였는데 이를 통해 어머니 자녀관이 긍정적일수록 영아는 모와 밀착되어 놀이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iegel과 McGillicuddy-De Lisi(2010)이 밝힌 데로 부모의 신념이나 자녀관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특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양육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김민정(2006)의 연구와 같이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비교적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집단을 연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은 아동의 부정적 기분과는 부적 상관, 지속적 주의와는 정적 상관을 보여 아동의 행동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과 영아의 상호작용행동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영아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전반적 반응성이 높을수록 영아의 부정적인 기분은 낮게 나타나고, 놀이집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강제성은 영아 행동 요인 중 부정적 기분과는 정적으로, 지속적 주의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보상은 영아행동 요인 중 지속적 주의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부정적 보상은 영아의 부정적 기분외에도 활동수준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지속적 주의 및 모와 참여간에 부적 상관의 유의하였는데 이는 어머니의 처벌은 아동의 주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월령집단별 크기가 작아 월령집단별로 구분하여 양육관련변인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행동간 상관을 분석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 보다 많은 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령에 따른 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에는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영아는 발달특성 상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으로 행동특성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외연구에서는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관찰법과 실험법이 제시되었다(Becker, Engelhardt, Steinmann, & Kane, 1997). 국내에서도 관찰법을 활용한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자유놀이 장면에서 부모-영유아간 상호작용을 평가한

연구(김정미, 성옥련, 현명호, 2000; 신은주, 1993; 정순희, 1990; 정지나 1998)와 구조화된 장난감 놀이나 게임 및 과제 수행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들(김민화, 광금주, 2004; 성지현, 2000; 이미란, 1999; 조윤정, 2002)이 있었다(한지현, 이영환, 2005).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작용행동분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시도된 연구들은 일부 연령에 국한되어 있어 영아기 전반에 걸친 상호작용행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어머니-자녀 상호작용행동특성 분석이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영아의 행동을 어머니의 인구조적 특성, 양육관련 내적 변인과 맥락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수가 적고 변수가 많아 구조방정식 등을 사용한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앞으로 보다 양육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많은 변수를 포함하여 사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세분화하여 영향의 기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란혜(200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취업모 가정과 비취업모 가정의 비교. **한국일본교육학연구**, 5(1), 189-201.
- 강소정, 김도희, 오경아, 이은숙, 정창희(1991). 한국 어머니의 전통적 자녀관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가정관리연구**, 10, 39-58.
- 고선주(1996). 부모기 전이 후 취업부부의 자녀 양육 참여 및 관련변수.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 115-139.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 김금주(1999).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과 영아의 언어 발달에 관한 연구. **논문집**, 1, 411-500.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문신(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6).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남성 화병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화, 광금주(2004). 장난감 중심 상호작용 상황에서 보이

- 는 영아-어머니의 주도성과 반응성. **한국심리학회지**, 17(2), 19-35.
- 김수영, 허선자(1996).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 영역과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 배경적 특성, 가정적 특성, 아동 특성. **연구논문집**, 52(1), 356-381.
- 김영희, 이정희, 박숙희, 방미란, 박세영, 이지애(2000). 신희 초기 어머니 됨과 돌봄 자신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2), 291-304.
- 김유심(2008). 빈곤층 여성한부모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대처자원 연구: 영적안녕감, 가족자원의 조절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2003).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가구주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45-261.
- 김정미, 성옥련, 현명호(2000). 부모-아동 상호작용행동 평정척도(MBRS 및 CBRIS)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4), 895-904.
- 김혜진(200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원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순, 신영희, 오가실, 김태임, 심미경(2005).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양육환경. **아동간호학회지**, 11(4), 415-426.
- 김희화(2005).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 **아동학회지**, 26(5), 311-330.
- 박미노(2007). 조손가정 손자녀들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손자녀들이 인지하는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2005). 어머니-영아간의 상호작용방식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5), 15-30.
- 박성연, 고은주(2003). 영아보육 및 가족변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91-106.
- 박지은(2009). 조손가정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원(2010).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2010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117-119.
- 백혜리(2005). 아동관 연구를 위한 개념적 구조. **교수논총**, 17, 232-250.
- 설영숙(1977). 한국 부모들의 자녀관. **이화여대심리연구논집**, 18, 41-53.
- 성지현(2000). 1세 영아-어머니의 언어와 놀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길연, 김수정, 이지현, 양돈규(2006).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송영혜, 김현희(2002). 부모-아동 자유놀이 상호작용 평가 모형. **놀이치료연구**, 6(1), 29-44.
- 신은주(1993). 가정과 보육시설에서의 유아-양육자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진희(2009). 유치원의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역할수행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6), 417-442.
- 원명선(200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란(1999). 사회적 게임에서의 영아-어머니 상호작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미, 민하영(2007). 유아의 기질 및 아버지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19-225.
- 이숙현(1990). 부모기로의 전화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논집**, 2, 1-27.
- 이영, 신은주, 나종혜(1994).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1). **아동학회지**, 15(2), 37-54.
- 이영은, 강양희, 박혜선, 황은주, 문미영(2003).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기질과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도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9(2), 206-220.
- 이재림, 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 이정순(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 세종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희, 문혁준(2005).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집**, 25(1), 75-95.
- 이혜경(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지각과 양육 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이천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춘애, 박성연(1996).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정순희(1990). 어머니-유아간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나(1998). 어머니-유아간 상호작용과 유아의 장독립성 인지양식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정(2002). 놀이감과 성별에 따른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은옥(2007). 교육실습 전·후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교사 이미지 변화. *열린유아교육연구*, 12(3), 19-42.
- 한지현, 이영환(2005). 모-영아 상호작용행동 평가 척도 개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1, 291-312.
- 허은주(1988). 부모의 성 및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양육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호유연(2008). 한부모가정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례, 유영주(1997).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생활과학논집*, 1(1), 63-76.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01-412.
- Ainsworth, M.,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Becker, P. T., Engelhardt, K. F., Steinmann, M. F., & Kane, J.(1997). Infant age, context, and family system influences on the interactive behaviors of infants with mental delay.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20, 39-50.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4(1), Pt. 2.
- Belsky, J.(1981). Early human experience: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3.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0.
- Belsky, J., & Rovine, M.(1984). Social-network contact, family support,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455-462.
- Coleman, P., & Karraker, K.(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Crnic, K. A., Greenberg, M. T., Rogo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B.(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ime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Frankel, K. A., & Bates, J. E.(1990). Mother-toddler problem-solving. Antecedents in attachment, home behavior, and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61, 810-819.
- Goldberg, W. M., & Morgan, S. P.(1991). Father sons, and daughters: differential involvement in parenting. *Marriage and the Family*, 53, 531-544.
- Goodnow, J. J.(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3, 87-97.
- House, J.(1981). Social structure and personality. In M. Rosenberg & R. Tumer (Eds),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pp. 525-561). NY: Basic Books.
- Kahn, R., & Antonucci, T.(1981). Convoys of social support: A life-course approach. In S. B. Kiesler, J. N. Morgan, & V. K. Oppenheimer (Eds.), *Aging: Social change* (pp. 383-405).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Luster, T., & Okagaki, L.(1993). Multiple influence on parenting: Ecological & life-course perspective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227-250). Hillsdale, NJ: Erlbaum.
- McGillicuddy-DeLisi, A.(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e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pp. 7-24). Hillsdale, NJ: Erlbaum.
- Miller, S. A.(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NICHD(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9). Child Care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the First 3 Years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35(6), 1399-1413.
- Olweus, D.(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 Rosengren, K. S., Behrend, D. A., & Perlmutter, M.(1993). Parental influences on children’s cognition. In R. Pasnak, R., & M. Howe, (1993). *Emerging themes in cognitive development: Volume II: Competencies* (pp. 103-121). New York: Springer-Verlag.
- Sandler, I. G., Miller, P., Short, J., & Wolchik, S. A.(1989). Social support as a protective factor for children in stress. In D. Belle (Ed.), *Children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pp. 277-307). New York: Willey.
- Siegel, I., & McGillicudy-DeLisi, A.(2010). *Parental belief sy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Hillsdale, NJ: Erlbaum.
- Thoits, P. A.(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45-159.
- Valdez-Menchaca, M. C., & Whitehurst, G. J.(1992).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A systematic extension to Mexican day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106-1114.
- Vandell, D. L.(1979). The effects of a playgroup experience on mother-son and father-son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79-385.

접 수 일 : 2010년 10월 31일
 심사시작일 : 2010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 : 2011년 3월 2일